

아이디어창출 및 발명의 발상기법

시간을 돈으로 바꾸려면

“시간은 돈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선생님과 선배는 동서고금에 얼마든지 있었다.

그러나, “시간을 돈으로 바꾸려면 이렇게 해야한다”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준 사람은 극히 적었다. 따라서 시간만을 많이 갖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 이 사회엔 우글우글하다.

“1주일에 이틀휴일은 좋지만”하고 시간을 주체 못해 하는 사람.

“병원 침대에서는 하루가 열흘과 같다. 그래서 그만 끄끙거리며 쓸데없는 것까지 공연한 걱정을 하고 있다고 탄식하는 사람.

“기차 안에서는 떠분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주간지나 읽고 있는 사람.

“손님이 오지 않아 한가해서 속상해요.”하며 푸념을 하고 있는 상점주인.

모두 시간을 주체 못해 하는 사람들로써,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므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전자 오락을”

“시간을 보내기 위해 영화관에”

“시간을 보내기 위해 바둑이나 장기를”하는 따위의 놀이가 성하게 된다. 즉, 남아 돌아가는 시간을 돈을 내고 낭비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렇게 되고 보면 “시간은 돈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 말쟁이’라고 욕을 얻어먹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옛부터 전해오는 금언이 거짓말이 된다. 그럴 리가 없다. 이것은 확실히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 쪽에 무언

가 결점이 있는 것이 틀림없다.

A부인은 외아들이 입원하여 그 간호를 맡아보고 있었다. 바쁠 때도 있지만 또 시간을 낭비할 때도 많다.

그러나 이 시간을 낭비할 때의 고통은 보통일이 아니다. 쓸데없는 고민이 차례차례로 떠오르게 된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고민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 그것은 옆자리 환자가 읽고 있던 ‘머리의 사용법’이라고 하는 책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 책에는 “감기로 누워 있었던 모씨가 주전자의 뚜껑 소리에 잠을 잘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옆에 있던 얼음을 깨는 송곳으로, 그 뚜껑에 구멍을 뚫어 김을 도망가게 했다. 이 고안을 실용신안으로 내었더니, 그 뚜껑이 잘 팔려서 로열티가 많이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안에 의해 인생을 명랑하게 한 예 등이 많이 썩여 있었다. 그 책을 빌려 읽은 A부인은 여가가 있다면 무슨 고안을 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답요는 어떻게 하면 따뜻할까?”

“얼음주머니 밑에는 수건을 놓는 것이 좋은가, 놓지 않는 것이 좋은가?”

“체온계는 어디에다 끼워야 할까?” 등등, 자신이 매일 하고 있는 간호에 대하여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을 노트에 기록하고 선 시간이 있을 때마다 되풀이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자 남은 시간이 없어졌다. 아니 남은 시간을 퀴즈나 퍼즐을 푸는 것 같은 즐거운 시간으로 바뀌었다.

“시간을 돈으로 바꾸려면 이렇게
해야한다.”하고 가르쳐 준 사람은 극히
적었다. 따라서 시간만을 많이 갖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 이 사회엔 우글우글하다.

여가가 있으면 연구를

어느날 A부인은 환자가 스트로로 우유를 마시는데, 상반신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았다.

“누운 채로 마실 수 있다면 편리할 텐데...”하고 생각했다.

“누운 채로 마시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A부인에겐 하나의 퀴즈가 되었다. 이것을 풀려고 여가의 시간을 전부 사용했다.”

“스트로를 구부리면 된다.”

하나의 열쇠는 곧 생각이 났다. 그래서 다음 날 고무관을 사 왔다. 이것이 자유롭게 구부러지므로 누운 채로 우유나 물약을 마실 수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보니 결점이 나타났다.

“고무의 냄새가 난다. 청소를 잘 할 수 없다.”

그래서 아들은 역시 상반신을 일으켜서라도 스트로로 마셨다.

A부인은 제2의 열쇠를 찾아내기 위해 또 생각하기 시작했다. 환자가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을 때 A부인은 얼핏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

‘이 아이가 죽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되지? -’ 하면서 부질없는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어떻게 하면 누운 채로 약을 마시게 하지? 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다.

어느날 A부인은 수도에 달려 있는 주름 호스가 달린, 자유롭게 구부릴 수 있는 관을

보고,

“그렇다. 스트로에 주름 호스를 달면 자유롭게 구부릴 수 있다.”

A부인은 퀴즈가 풀린 기쁨에 자신도 모르게 환성을 올렸다. 그리고 노트 위에 주름 호스가 달린 스트로의 그림을 그려 보았다.

그렇게 하고선 변리사를 찾아가서 상의를 했다.

변리사는 이것을 특허청에 출원해 줌과 함께, 선배발명가들에게 발의하여 제조 방법의 연구를 의뢰했다.

아무리 A부인이 좋은 착안을 했다고 해도, 그것을 제조하려면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3,4명의 기술자들이 이것을 만드는 제조 기계를 발명하여,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A부인에겐 권리사용료를 지불하기로 되어 있다.

“역시 생각하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앞으로는 퀴즈나 퍼즐을 잘 푸 것과 같은 생각으로 연구하고 싶어요.”하고 A부인은 상냥하게 얘기했다. <♣>

PATENT MAP

(P·M의 작성과 활용에 관한 지침서)

4·6배판, 543면

정가: 13,000원